

정주형

변호사시험대비
강의계획서

교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 시험을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형사기록의 완벽한 분석
- 형사법기록형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기본적으로 확보
- 고득점을 위한 증거법의 연마

일 정

2023. 7.10(월) ~ 7. 12(수), 총 6 회(오전/오후 연강)

시간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오후 14시 ~ 17시 30분

교 재

All-in-one 형사법 기록형 강의안(네오고시뱅크)

+ 실전기록&분석자료(프린트)

변호사시험 대비

정주형 교수 강의계획서

형사법 기록형핵심정리

강 의 진 행

1. 본 강좌는 기록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승소판결을 위한 분석과 서술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이 고득점을 맞기 위한 분석과 서술에 집중할 것입니다.
2. 형사법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록은, 현실기록이 아니라 시험을 위해 짜여진 기록입니다. 따라서, 평가를 위해 다양하게 숨겨놓은 논점과 트릭이 존재합니다.
1차적으로 형사법기록형의 짜여진 논점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서부터 기록형 강의는 시작됩니다.
3.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증거파트는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증거법을 완전히 독파할 것입니다.
4.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실전 답안작성을 위해 반드시 암기해야할 서술을 요약하여 배포합니다.
5. 증거법외에 형식재판, 제325조 전단의 무죄 등에 관한 출제유력사례를 분석하고 완벽히 대비합니다.

변호사시험 대비

정주형 교수 강의계획서

형사법 기록형핵심정리

강의진도표 (형소법)	회차	일정	진도(해당내용)
	1	7/10(월) (오전)	형사기록형의 실제, 기록을 읽는 법 메모하는 법, 형사기록형의 구조
	2	7/10(월) (오후)	공소기각과 면소의 답안작성법
	3	7/11(화) (오전)	형사기록에 있어 숨겨진 증거법의 논점
	4	7/11(화) (오후)	형사기록과 증거능력 판단의 실제
	5	7/12(수) (오전)	형사기록에 있어, 무죄판결의 공식
	6	7/12(수) (오후)	기록의 실제분석과 답안작성 및 현장지도

제 3 장

실전기록의 분석

I. 공판조서

[예제] 2013년도 제2회 기출 23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 이 름 박병진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을 때 증인은 인정하는 진술임

검사

증인에게 수사기록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열람하게 한 후,

문

증인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조서는 그때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2012. 6. 10.경 죽은 양신구로부터 2억 원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피고인 아닌 증인 박병진이 피고인 아닌 자(양신구)의 진술을 전문한 부분 → 제316조 제2항(특신상태가 합리적 의심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사정이 없음 주장가능)

답

예, 제가 그때 김갑인과 죽은 양신구를 함께 만나서 매매대금이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따졌는데, 죽은 양신구가 “김갑인의 지시에 따라 이을해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해주었다”고 분명히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증인에게

문

피고인 이을해가 증인에게 2012. 6. 1.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답

예, 그때 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돈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 12. 21.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 이 름 안경위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 피고인 이을해가 증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가요.

답 피고인은 조사 당시 2012. 4.경 박병진으로부터 주유소 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기로 김갑인과 공모하고, 실제로는 최정오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하였음에도 박병진에게 토지소유자가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해 5.경 박병진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자백하였

조사자증언으로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정황임

문 피고인 이을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피고인은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기에 담배도 1대 피우도록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을해를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함. 기재는 (생략).

2012. 12. 21.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예제] 증인신문조서에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사례(2019 변시기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8고합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증 인 이 름 나병녀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문할 증인들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증인의 지위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검사

문 (증거목록 순번 1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 이을남도 자고
답 예, 얼핏 남자 두 명이

피고인 아닌 나병녀가 피고인 아닌 홍중재의 진술을 전문하는 내용인데, 홍중재의 진술은 또 다시 이을남의 진술을 전문하는 것이다. 이른바, 재전문진술로서 판례에 의하면 증거동의를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통상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받지 않으므로,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검토하게 된다.

날 피고인들에게 따졌을 때 이을남도
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을남으로부터 김갑동이 충동질하는 바람에 김갑동과 함께 사고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 증인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는데, 그 기억이 틀림없나요.

답 예, 그날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이제는 기억이 납니다.

문 당시 피고인 이을남이 어떤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이을남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 12. 27.

법원사무관 김초원 ㉠
재판장판사 이동현 ㉠